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413호 1판 (음력 12월 16일)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국과수

전일빌딩 10층 150여개 총탄흔적
"5·18때 軍 헬기사격 가능성 높다"

'발포 명령' 전모 밝혀야

"헬기 금남로 상공 정지상태서 상하로 고도 바꿔 기총소사한 듯"
5월 21일 오후 1시 집단발포·1~3시 헬기총격…치밀한 작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광주시 금남로 1-1번지 전일빌딩 내부 총탄 흔적을 근거로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투입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 만에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기관인 국과수가 전일빌딩 총탄 흔적에 대해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총소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민주시민의 정당한 시위를 향한 신군부의 무자비한 살상작전을 규탄하는 시민들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국과수의 발표를 계기로 '5·18 발포 명령자를 색출해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한다'는 여론도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에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고 같은 날 오후 1~3시 '헬기에서 불을 내뿜으며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광주시민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상과 공중 동시 사격을 통한 광주시민 살상 작전이 명령에 따라 치밀하게 수행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의뢰기관인 광주시에 통보한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에서 "건물 최상층인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150여점의 총탄 흔적은 정지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발견된 총탄 흔적의 위치와 각도 등을 고려하면 사격을 가한 헬기가 금남로 상공에서 정지한 상태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감정결과를 접한 5·18 기념재단 측은 "군당국의 '헬기 사격은 없었고, 도청 앞 사격은 상부의 명령 없이 현장에서 이뤄진 자위권 발동'이라는 억지 논리를 산산이 깨뜨리는 정부 발표"라고 국과수 통보에 의미를 부여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광주시민, 외국인 목사 등 수많은 목격자가 국회 광주청문회와 검찰 조사, 언론 등을 통해 '헬기 사격 증언'을 쏟아냈지만, 80년 5월 광주학살을 주도한 신군부와 군당국은 물론 수사에 나섰던 당시 검찰도 헬기 사격을 부인해왔다.

국과수는 특히 5·18 당시 전일빌딩 총탄 흔적과 관련해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에 의한 무차별 사격을 의미하는 '기총 소사' 가능성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국과수가 천정에 부착된 텍스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 생성 방향 등을 살펴본 결과 "거치 된 기관총의 사격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당시 계엄군이 투입한 UH-1 헬기의 양쪽 문에 거치 된 M 60 기관총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정서에 적시했기 때문이다.

국과수는 창틀 주변에서 발견된 탄흔의 경우 "탄흔 크기에 국한해 분석하면, 헬기에 탑승한 2인 이상 다수의 소총병이 M 16소총으로 동시 사격한 정황으로 추정되나 창틀 주변과 천장 탄흔을 종합할 경우 그 가능성이 작다"며 사용된 총기의 판단은 유보했다.

국과수는 앞서 광주시의 의뢰를 받고 지난달 13~14일 현장조사를 거쳐 전일빌딩 10층(옛 전일방송) 내부 기둥, 벽면, 천장, 바닥 등지에서 최소 150여점 이상의 총탄 흔적을 발견하고 생성 배경을 분석해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최근 광주시 금남로 전일빌딩 내부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은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의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감정서가 12일 공개됐다. 5·18 당시 전일빌딩 주변을 낮게 날고 있는 헬기를 촬영한 모습. 〈5·18 기념재단 제공〉

철도 이어 고속도로도 '호남 교통 소외'

5년간 29조 투입 고속도로 건설
전남, 금천~대덕 49.5km 뿐

정부가 향후 5년간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넓히는데 29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면서 광주·전남에 대한 신규 투자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는 물론 철도 등 정부의 기반시설 투자가 국토균형발전보다는 기존 혼잡지역의 개선에 집중되면서 호남 홀대가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신규로 추진하는 23개 사업, 기존 36개 사업 등에 모두 28조9000억원(신규 7조4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우선 수도권, 영남권의 혼잡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 간 방사도로, 지선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서울~양평(연장 26.8km, 사업비 1조2848억원), 울산외곽(14.5km, 5234억원), 서창~장수(4.0km, 3241억원), 밀양~진례(18.6km , 7910억원), 부산신항~김해(14.6km, 8251억원), 대산~당진(24.3km, 6501억원), 성주~대구(25.0km, 8698억원) 등이 정부 재정으로 신설된다. 광주·전남에서는 금천~대덕 구간(49.5km, 2조782억원)이 포함됐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다. 과거 신설 계획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확장되는 고속도로는 남이~대소(42.3km, 6604억원), 창원~진영(7.5km, 744억원), 칠원~창원(12.4km, 2635억원), 매송~안산(8.9km, 2267억원), 서평택~매송(25.5km, 4404억원) 등이다. 호남선과 호남지선은 삼례~김제(18.3km, 2322억원), 서대전~유성(8.4km, 1693억원), 유성~회덕(11.1km, 2625억원) 등 3개 구간이 해당된다. 광주·전남지역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반기문 귀국 "국가 위해 몸 불사르겠다"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이념의 양극화와 세대 갈등을 끝내야 한다. 패권, 기득권 다 안 된다"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겪은 여러 경험과 식견 가지고 젊은이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길잡이 노릇을 하겠다"며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세계 인류 국가로 나가는 데 노력이라면 분명히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반 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사심 없는 결정하겠다. 그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국내 상황에 대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는 부정과 부조리로 얼룩져있다. 총체적 난국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다. 개탄할 일"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이어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도 우리 사회 분열을 어떻게 치료할까 하는 해법을 같이 찾아야 한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가 뭐가 중요하냐"며 "정쟁으로 나라와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것은 민족적 재앙이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업자-브로커-공직자 '검은 유착'
공사·납품계약 비리 30명 구속 ▶6면

新 팔도유람 - 충남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전남대 제 20대 총장 정병석 교수 임명

제 20대 전남대학교 총장에 정병석(59·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교육부는 최근 총장 임용제청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가 이뤄지면서 전남대 총장에 정 교수가 임명됐다고 12일 발표했다. 임기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4년이다.

정 신임 총장은 "전남대는 개교 이래 65년 동안 지성의 전당으로 민주주의와 인권·평화를 지켜왔다"면서 "자랑스러운 역사가 긍지와 희망으로 피어나도록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총장은 서울대에서 법학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지난 1986년부터 전남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과 콜로라도 대학 로스쿨에서 두 차례 방문 학자를 지냈고 전남대 법과대학장, 융합인재교육원장, 기획연구실 부실장, 로스쿨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